

# 어명소 2차관, “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조치 조속 시행할 것”

- 26일 중수본 회의를 통해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논의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6일(목) 오후 2시 ‘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’ 논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.
  -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, 환경부, 소방청 등 유관부처와 경기도, 한국도로공사 등 방음시설 운영 기관이 참여하여 화재 등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수습과 더불어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전수조사, 도로관리청에 PMMA 소재 방음터널 중단 및 기존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긴급 지시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,
  -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화재에 취약한 방음시설의 조기 철거·교체 방안,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.
  - 이에, 행안부, 소방청, 경기도,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“방음시설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어 차관은 “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”면서
  - “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터널, 방음벽 화재사고로 인해 도로 방음시설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,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시설의 철거·교체 등 조속한 대책 마련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1. 26.

국토교통부 대변인